

‘골프여제의 귀환’ 박인비 30개월만에 세계1위 탈환

최근 절정의 기량 과시하며 제2의 전성기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2년6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로 복귀했다. 박인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JTBC LA 오픈’에서 공동 2위를 했다.

LPGA 투어는 “현재 세계 랭킹 3위인 박인비가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이번 주 톨렉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1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박인비는 랭킹 1위 평산산(중국)과 2위

렉시 톨슨(미국)이 공동 12위에 머물면서 1위 탈환에 성공했다. 평산산이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6위 이내에 들어야 했다. 2013년 4월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박인비는 2015년 10월 이후 2년반 만에 1위 탈환에 성공했다.

2014년 6월까지 1위를 유지한 박인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게 1위를 내줬으나 그해 10월 1위를 되찾았다.

이후 라디아 고(뉴질랜드)와 1위를 놓고 경쟁하다가 2015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세계 1위에서 멀어졌다. 2년5개월 동안 총 92주 동안 1위를 지켰다.

2016년 이후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박인비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한동안 투어에서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투어에 복귀해 HSBC 챔피언스에서 통산 18승을 거뒀으나 또 다시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접어야 했다.

올 시즌 복귀 두 번째 대회인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면서 재기의 신호탄을 쏜 박인비는 최근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파운더스컵 우승을 시작으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준우승, 롯데 챔피언십 공동 3위에 이어 또 다시 공동 2위를 하며 최근 5개 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경쟁을 펼치며 톱3에 이름을 올렸다.

정작 스스로는 세계랭킹 1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LPGA 투어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자랑한다. 지금과 같은 경기력이면 통산 20승 고지 접령도 머지않아 달성하는 것은 물론 한 동안 1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박인비 “내 골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두달동안 괜찮은 경기...퍼팅 연습은 필요”

2년6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로 복귀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좋은 플레이에 대한 선물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박인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셔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JTBC LA 오픈’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타의 기록으로 공동 2위를 했다.

박인비는 지난달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 컵 우승을 시작으로 최근 5개 대회 중 4차례나 톱3에 오르며 전성기 못지않은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

2015년 10월 이후 2년반 만에 왕좌까지 탈환했다.

박인비는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세계랭킹 1위가 사실 올해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좋은 플레이에 대한 선물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랭킹 간 격차가 별로 없어 매주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1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순위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단지 내 골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며 이야기했다.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는 “최근 두 달 동안 괜찮은 경기를 하고 있다. 좋

은 공을 치고 있고 모든 것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며 “그린이 조금씩 다를 뿐 머릿은 잘되고, 머릿은 좋지 않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다. 다만 퍼팅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뷔 5년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을 차지한 모리아 쉐라누킨(태국)에게도 축하의 말을 잊지 않았다. “모리아가 오늘 정말 좋은 경기를 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 붙으려고 노력했지만 매우 견고한 플레이로 우승을 했다.”

박인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LPGA투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다승이자 통산 20승에 도전한다.

뉴스스

추신수, 6G 연속 안타 타율 0.247...팀은 3연패 끝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6경기 연속 안타와 함께 타점을 추가했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딜리노 드실즈

가 1번에 배치되며 2번 타순에 자리했지만 최근 타격감을 계속 이어갔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7(89타수 22안타)을 유지했다. 타점은 11개가 됐다.

1회 첫 타석에서 시애틀 선발 에리스모 라미레스에게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4-2로 앞선 5회 2사 3루에 주자들

두고 세 번째 타석에서 수비 시프트를 역이용해 내야 깊숙한 안타를 만들어냈다.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타점도 올렸다.

7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아웃됐고, 더 이상의 타격 기회를 돌아오지 않았다. 텍사스는 선발 마틴 페레스의 6이닝 2실점 후투에 힘입어 7-4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다.

KIA 양현종, KBO 최장 이닝 무사구(死球) 신기록

3시즌 걸쳐 318⅓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 0개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이 KBO 역대 최장 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 없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광주 LG전에 선발 등판 예정인 양현종은 지난 13일 광주 롯데

전에 선발 투수로 나서 1회초 상대 1번 타자 전준우와 2번 타자 김동찬을 발타와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312이닝 동안 몸에 맞는 공을 기록하지 않게 됐다.

이는 KBO 최장 이닝 무사구 기록이며, 종전 기록은 신승수 KIA 퓨처스 투수 코치가 기록한 311⅓이닝이었다.

양현종은 이날 7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단 1개의 사구도 내주지 않으면서, 최장 이닝 기록을 318⅓이닝까지 늘려 놓았다.

659일 동안 1337타자를 상대하며 단 한 개의 몸에 맞는 공도 허용하지 않았던 셈이다.

양현종의 무사구 기록은 지난 2016년 6월 29일 광주 LG전에서 시작했다.

이날 선발투수로 나선 양현종은 2회초 1아웃 1.3루 상황에서 상대 7번 타자 이병규(현 롯데)에게 몸에 맞는 공을 내준 뒤 현재까지 무사구 투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양현종은 지난 시즌 31경기에 193⅓이닝을 던지면서 단 1개의 사구를 허용하지 않고 20승을 거둬, KBO 최초의 무사구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뉴스스

오타니 쇼헤이, 야구 종주국에서 신화를 쓴다

흥경기 첫 타석 홈런 · 첫 등판 승리 등 슈퍼 루키



“오타니 쇼헤이의 타격 능력은 고교수준이다.”

미국의 한 기사는 시즌 전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의 말을 인용해 오타니에 대한 평가를 기사화했다. 개막 후 오타니의 타격 능력과 피칭 실력을 본 후 이 기사는 오타니에 대한 견해를 바꿔놓았다. “내가 잘못 봤다”는 말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오타니의 능력은 신기에 가깝다. 160km 이상의 공속구를 뿌리는 투수 겸 홈런타자. 만화나 오락게임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2018년 메이저리그에서 진행되고 있다.

◇ ‘강속구’ 괴력의 소년의 출현

오타니는 고교 2학년 시절에 이미 시속 150km대의 강속구를 뿌렸다. 3학년 때 160km의 강속구로 삼진을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오타니를 상대한 타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빠른 공에 스탠딩 삼진을 당한 후 쓰웃음을 지었다. 일본 야구팬들은 강속구를 뿌리는 소년의 등장에 큰 기대를 걸었다. 고교 졸업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지만, 니혼햄 파이더스의 설득으로 니혼햄 유니폼을 입었다. 등번호는 니혼햄의 에이스였던 다르빗슈유가 사용했던 11번을 받았다.

프로 데뷔 첫 해인 2013년 선발 투수 경험을 쌓은 오타니는 2014년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24경기에 선발로 나와 11승4패에 평균자책점 2.61을 기록했다. 타자를 겸한 홈런을 기록했다. 약관의 선수가 일 시즌 두자릿수 승타-홈런을 기록하며 열도를 흔들었다. 2015년에는 15승을 올렸고, 2016년에는 무려 22개의 홈런을 터뜨려 투타 겸업이 가능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다.

오타니는 3월 30일 오클랜드 어슬틱스에서 타자로 바리크 데비전을 치렀다. 데뷔 첫 타석에서 초구를 공략해 안타로 연결했다. 시즌에 돌입하자 오른 다리를 들고 앞으로 이동하는 ‘베그리’를 과감하게 버렸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빠른 공과 각이 큰 변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리를 들지 않았다. 뛰어난 콘택트 능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4월 2일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선발투수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1피홈런) 6탈삼진 1볼넷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데뷔 첫 선발등판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이를 후 클리블랜드

◇ ‘투타 겸업’ 꿈의 무대로...

오타니는 2017시즌을 끝으로 미국 진출을 선언했다. 그의 도전 선인과 함께 메이저리그 대부분의 구단은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비교적 적은 돈에 일본 최고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오타니는 LA 에인절스가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고 목표를 이루게 해 준 최고의 환경을 갖춘 팀으로 봤다. 또한 에인절스는 오타니의 ‘투타 겸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타니는 에인절스를 선택했다.

미국 언론도 고무적이었다. 제2의 베이브 루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연습 경기, 시범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타자 오타니의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수준 이하의 타자로 평가되기도 했다. 오타니에게도 메이저리그의 벽은 높아 보였다. 투타 모두 도전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미국과 일본 선수들의 조언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 시범경기는 위망일...진짜가 나타났다

오타니는 3월 30일 오클랜드 어슬틱스에서 타자로 바리크 데비전을 치렀다. 데뷔 첫 타석에서 초구를 공략해 안타로 연결했다. 시즌에 돌입하자 오른 다리를 들고 앞으로 이동하는 ‘베그리’를 과감하게 버렸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빠른 공과 각이 큰 변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리를 들지 않았다. 뛰어난 콘택트 능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4월 2일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선발투수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1피홈런) 6탈삼진 1볼넷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데뷔 첫 선발등판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이를 후 클리블랜드

드 인디언스전에서 3점포를 날려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다. 데뷔 첫 타석 안타, 선발 데뷔전 승리투, 2경기 만에 홈런 등 슈퍼 루키의 등장을 알렸다. 5일 클리블랜드전, 7일 오클랜드전에서도 연달아 홈런을 쏘아 올렸다. 3경기 연속 대표를 가동한 것이다.

미국 야구계는 경악했다. 9일 오클랜드전에서는 선발투수로 나와 7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오타니의 160km에 이르는 지구와 140km대의 고속 스피리터를 제대로 공략하는 타자들이 없었다.

◇ “이 남자에게 불가능이란 없나?”

비록 시즌 초반이긴 해도 바리크 무대에서 오타니 정도의 볼륨을 일으킨 선수는 거의 없었다.

2경기 연속 홈런을 본 USA 투데이는 “오타니가 지난해 사이영상 투수 코리 클루버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렸다. 이 남자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인가?”라고 극찬했다. 3경기 연속 홈런이 터지자 LA 타임스는 “흥경기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친 오타니가 흥경기 첫 등판에서 ‘퍼펙트 게임’ 눈앞까지 갔다”고 보도했고, 데드스핀닷컴은 “오타니는 지구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야후스포츠 역시 “오타니가 홈 팬들의 혼을 빼놓았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에서 개막 후 첫 10경기에서 2승에 3홈런을 친 선수는 1919년 짐 쇼 이후 99년 만에 오타니가 두 번째다. 시즌 3경기 연속 홈런과 연속 두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한 선수는 1973년 톰 브렛과 1921년 베이브 루스에 이어 오타니가 세 번째였다.

◇ 이제는 체력 관리가 변수

오타니를 보는 야구팬들은 즐겁다. 이구동성으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 “정말 믿을 건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메이저리그는 팀당 162경기를 치른다. 시즌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 투수, 야수 모두 지치지 마련이다. 동양인 선수에게 낯선 시차, 많은 경기수, 먼 이동거리를 극복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하는 오타니에게 체력관리는 더욱 중요한 수박에 없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한 몸놀림을 보여주다가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고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즌 중반 이후에는 투수든, 타자든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수도 있다. 월기왕성한 20대 선수라도 혹사는 선수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뉴스스